





회원 가족 여러분, 그리고 <Housing & People>을 아껴주시는 애독자 여러분!

무자년(戊子年) 새해를 맞아 여러분의 가정에 행복과 희망이 넘치길 진심으로
기원합니다.

지난 한 해는 사회·경제·정치적으로 참으로 다사다난했습니다. 특히 주택 시장
에는 민간 택지에서 분양되는 주택까지 분양가 상한제, 원가 공개가 적용되면서 가
뜩이나 어려운 주택 경기를 더욱 위축시키고 업계를 힘들게 했습니다.

그러나 우리 주택 건설 업계는 어려운 여건하에서도 위기를 기회로 여기며 끊임없
는 도전과 기술 혁신으로 국민 주거 안정을 위해 땀 흘리며 열정을 다해왔습니다.

회원 가족 여러분, 그리고 애독자 여러분!

올해는 대한민국 건국 60년을 맞이하는 해이자, 새로운 정부가 출범하는 뜻 깊은
해입니다. 새 정부가 들어서면 침체된 경제에 훈풍을 불어넣어 위축된 국내 경기를
회복시키고 지속적인 경제 성장을 이룰 수 있는 사회·경제적인 환경을 만들어줄
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. 또한 부동산 시장에서의 과도한 규제가 완화되면 주택
거래가 활성화되고, 안정적인 주택 공급이 이루어져 주택 시장의 질서가 회복될 것
으로 보입니다.

2008년, 새해에는 보다 나은 여건 속에서 더 큰 희망을 가지고 힘찬 도약을 이루어
커다란 발전과 성장을 이루시길 기원합니다.

그리고 여러분의 가정에 화목과 건강이 충만하시기를 다시 한 번 기원하면서 신년
사를 대신하고자 합니다.

감사합니다.

한국주택협회 회장 신훈

